

# FOUR

## 미래를 바꾸는 네 가지 키워드

- 01 경제자유구역
- 02 창릉천
- 03 광역철도망 확충
- 04 자유로~강변북로 지하화

# KEY WORD

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글로벌 자족도시,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이 사통팔달 연결된 도시,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에 발 담그며 쉴 수 있는 도시,  
 그로 인해 시민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풍요로워지는 도시,  
 바로 민선8기 고양특례시가 추구하는 내일의 모습이다.  
 이곳에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바꿀 네 가지 키워드를 담는다.

## KEY WORD

### #01 경제자유구역



#### 경기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베드타운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자족도시로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다. 또한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다른 사업들이 후속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 붓는 1순위 정책이다.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연구용역 추진

고양특례시는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안산시와 공동으로 본격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3월 중 업체를 선정하여 11개월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 비전 및 추진전략,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시설 확보,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1월,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경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산자부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6월경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특례시가 산자부 심사에서 최종 선정된다면,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4차 첨단 산업의 활발한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자족도시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양특례시 1호 글로벌 기업 유치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11월 30일, 일본 오사카에서 세계 1위 엔터기업 AEG, CJ라이브시티와 함께 'K-컬처 클러스터 조성 및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AEG와 CJ라이브시티는 고양시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5대 전략 중 하나인 'K-컬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시와 다각도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AEG-CJ라이브 시티 합작법인(조인트벤처JV)의 한국사무소가 고양시특례시에 설립될 예정이다.

글로벌 1위 엔터테인먼트기업인 AEG는 현재 건설 중인 'CJ라이브시티 아레나'에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의 공연을 유치하는 한편, 고양시특례시가 전 세계에 K-팝을 대표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기업과 자본을 추가 유치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CJ라이브시티는 이번 AEG 합작법인(JV) 한국사무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국내의 기업들이 고양시특례시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CJ라이브시티 단지 안에 글로벌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 환경과 지원 인프라를 갖춘 'K-라이프스타일 앵커 콤플렉스(K-Lifestyle Anchor Complex)'를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니즈에 맞춘 특화 숙박시설, 개방형 전망대를 포함한 관광시설도 갖춘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는 'K-라이프스타일 앵커 콤플렉스'가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며, 글로벌 기업 유치를 기반으로 AEG와 CJ라이브시티가 향후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